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for Marriage Expectant Couple

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조 교 수 박 주 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교 수 임 선 영

Dept. of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 Park, Ju-Hee

Dept. of, Social Welfare Kukje Theological Univ. of Seminary

Assistant Professor : Im, Sun-Young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o implement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potential capacity in marital life, targeted at marriage expectant couple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For this study, 8 marriage expectant couples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dvance and follow-up surveys were conducted. To be specific, the advanced surveys questions were posed regarding general features, the level of communication, conflict-resolution skill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gender and so forth of those persons polled. In follow-up surveys, questions were asked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cipant was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teaching process in each session of the programs, the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gender, the level of communication and conflict-resolution skill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based on the subjectiv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instructor and the program manager and the statistical analyses of advance and follow-up surveys.

Our findings show:

First, the changes in ‘the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after ‘the education of the role of the gende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Second, after ‘the education of communication’ was implemented, the capability of the participants to communicate proved to have improved.

Third,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scored higher than the average, the level of educational satisfaction with ‘the skil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husband and wife’ scoring the highest.

Fourth,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program,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each party of the couple turned out relatively high, and the level of the overall education program also proved to be high.

▲주요어(Key Words) : 결혼준비교육(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예비부부(marriage expectant couple), 의사소통기술(communi-
cation skill), 성역할(gender role), 갈등해결기술(conflict resolution skill)

* 주 저 자 : 박주희 (Email : pjh@sungshin.ac.kr)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결혼초기의 배우자간의 적응여부는 결혼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잘 유지시키고 발달 시키거나갈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는 그들의 결혼생활의 질적 측면에 매우 중요하게 관계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는 매우 큰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숙자, 2008; 김영화 등, 2007; 박주희, 2007).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5년도 기준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조 이혼율 또한 미국을 뒤따라 세계 2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하여 국가적으로도 이혼의 예방과 이혼의 원인을 다차원적 시각에서 규명하는 것을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통계청(2008)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7년도 한해 조이혼율은 25건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2003년도 조이혼율 35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속적인 감소를 예견하기는 아직 어렵다. 동거 기간별 구성비에 따르면, 5년 미만 27.1%로 가장 높아 배우자 간의 결혼초기부터의 결혼생활의 적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즉,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 태도, 행동 측면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커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손정영 등, 2005)

한편,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것에 주목하여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1981) 미래의 가족은 가족의 경제적 또는 돌봄의 기능보다는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기능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즉, 미래의 결혼생활에서의 배우자 상호간의 역할 기대는 인생의 반려자, 성적 파트너 그리고 따뜻한 정서적 지원자로서 마음의 안식을 제공받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는 현대결혼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우자간의 사회적 관계기능은 그들의 결혼관계 뿐만 가족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Mace, 1979). 즉, 부부관계는 가족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족 하위체계이므로 역기능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가족은 그들 가족생활을 기능적이고 건강하게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상호관계를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문제의 예방과 함께 가족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편, 결혼생활의 문제예방을 위한 한 방안으로 '결혼준비교육'을 제안할 수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 전에 커플의 대인관계의 잠재능력을 강화시켜 그들의 미래가족생활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문제의 예방을 고려할 때 결혼 전에 부부들의 적응능력을 돕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다. 부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은 결혼 이전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관계 향상교육의 제공시기와 그 교육효과를 분석한 한 연구는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이전 '미혼시기'의 교육이 결혼 후에 제공 되어지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박말순, 1998). 즉 부부관계는 문제가 발생 한 후 치료적 개입을 시도할지라도 문제를 경험한 부부들은 그들 갈등의 기억과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병리적인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할 때 결혼문제의 예방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커플들의 결혼 전의 교제기간에 형성되고 발전된 대인관계의 유형들은 결혼관계의 성공여부에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Cate & Lloyd, 1988).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준비교육'은 이혼 등 가족문제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사회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진다. 즉, 결혼준비교육은 가족문제를 예방시킴으로써 문제 발생 후 사후 처리를 위한 국가비용의 절감에 공헌할 것이며, 가정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주희, 2005).

본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은 '가족문제의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즉, '예방과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예비부부들의 결혼생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결혼생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결혼생활의 잠재적 보호 능력을 강화시켜 안정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결혼관계에 내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자(Risk Factors)'를 억제시키고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를 촉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즉, 가족문제 예방의 시각에서 부부의 신념체계, 역할구조, 의사소통의 과정, 응집력, 유연성(Walsh, 1998) 등과 같은 효과적 가족기능의 핵심요소들인 내적자원들을 강화시켜 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스트레스를 잘 다루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성장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이다(박주희, 200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은 예비커플의 미래가족의 문제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커플교육이다. 결혼을 앞둔 커플의 프로그램 참여는 그들로 하여금 결혼생활에서 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에 관계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현대가족의 특징을 반영하여 핵심적인 주제영역을 선정하였다. 특히 변화되어져가는 가족의 기능 및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 맞벌이 가족의 증가에 따른 배우자간의 평등한 관계형성 및 역할 분담의 욕구 등을 중요하게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를 고려하여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였다. 변화하는 현대가족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가족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회적 자원의 사용을 위한 용이한 접근성은 가족의 문제예방과 기능강화에 공헌하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기술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Olson(1983)은 결혼 전 교제기간 동안 능동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형성하고 발달시킨 부부들은 결혼 후 그들의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적응능력이 높다고 한다.

부부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의사소통의 불일치는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주희, 2007; 송정아, 2006).

셋째, 배우자간의 평등한 관계형성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였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해가는 것과 함께 성 역할 교육 현대 부부교육의 매우 중요한 주제영역이다. 배우자간의 역할 공유가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과 위기는 결혼생활의 위협인자로 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사랑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 한다(박주희, 2007).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부부관계를 이끄는 핵심적인 기술을 촉진시킬 것이다. 사랑은 현대결혼의 주춧돌이 되는 것처럼 부부간의 건강한 애정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부교육의 매우 내용이다.

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결혼초기 부부들의 적응을 위한 매우 과제이다.

부부생활에서의 성은 성적 욕구충족과 재생산적 생리를 넘어서 더욱 심층적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결혼생활에서 적용되어져야 할 성적 윤리 및 가치 등을 고려한 부부들이 지녀야 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부부생활의 적응에 매우 중요하게 관계한다.

부부의 적응능력 강화는 결혼초기부터 부부가 새로운 가족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과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것과

부부의 사랑과 원만한 성적 관계 등의 부부관계의 강화에 의하여 성취되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부부들의 결혼생활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평등한 성역할 구조의 형성 등을 돕는 결혼기능의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최정숙, 2008) 및 실시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미래 결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에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부부의 욕구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을 예방과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 실시 하였다는 점과 교육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행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과 구별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준비교육

최근 결혼준비교육 필요성 및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해온 대표 국가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클라호마 주, 플로리다 주,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결혼준비 및 그 지원에 관한 법안과 결혼 전 교육 법안을 입법화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해 결혼준비교육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주도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들은 Maryland-Based Relationship Enrichment Curriculum, Florida-Based PAIRS(Practical Application of Relationship Skills)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도적 프로그램은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지고 있다. 또한 Danver 대학의 부설연구소가 실시하는 PREP(The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는 공교육의 교과과정에서 뿐 아니라 군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 밖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주 행정부에서 결정한 통상 8시간에서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결혼증명 신청비용(Marriage License Fee)을 삭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박주희, 2007).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주도인 ‘탈라하쉬(Tallahassee)’의 경우 공교육 과정과 시민단체에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 준비교육이 실시된 지난 8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혼이 25% 감소되었다고 한다(MBC Special, 2006년 6월 16일). 또한 ‘탈라하쉬(Tallahassee)’에서는 결혼준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혼준비교육을 이수한 부부들에게는 결혼 등록비 75불 중 1/3을 할인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성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결과들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및 실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있어도 결혼준비교육은 결과적으로 결혼의 안정성과 결혼생활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오윤자, 2001; 정미향 등, 2001; 정현숙, 2005).

한편, 우리나라의 결혼준비교육은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여 교육의 목표를 변화시켜왔다. 초기 결혼준비교육은 1970년대 경에 시작되었으며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 포항 여성회관 등에서 '신부강좌' 등을 개설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을 돕는 요리, 예절, 가정관리, 교양 등의 교양교육과 알뜰살림 꾸리기 위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였다. 중기 라 할 수 있는 1980년대는 '두란노 서원'의 '결혼예비학교' 등과 같은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결혼준비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초기의 신부교육인 개인교육에서 벗어나 배우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부부의 유대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배우자의 관계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즉, 커플간의 성장을 촉진 시키고 관계향상과 욕구충족을 중요시하였다. 이 시기는 결혼준비교육은 개인 중심의 단순한 정보제공 보다는 교육을 통해 커플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및 결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박주희, 2007).

현재의 결혼준비교육은 학문적 접근에 의하여 가족생활의 평생 발달적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해 결혼과 가족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부부 상호간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영호 등, 2004).

2. 부부관계의 향상

1) 개념

부부관계의 상호증진은 결혼생활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관제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신수련, 1993; Fowers, 1990; Sabatelli, 1980). 현대가족을 위한 '결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감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향상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한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윤자(2002)는 부부관계의 향상은 부부체계내의 강점을 인지시키고, 변화에 잘 대처하며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기능적이고 만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였다.

Olson의(1983)와 Olson(2003)은 부부관계의 만족과 향상을 ENRICH 커플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는 ENRICH 커플 척도의 내용을 결혼생활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이상적 기대(Idealistic Distortion) 등 부부생활의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조화와 만족감 등으로 구분하였다.

부부향상에 대한 개념은 부부생활의 모든 국면을 조명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부부향상의 평가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부부생활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현·박주희, 2005).

부부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같은 외적 요인의 연관에서 뿐 아니라 부부의 질적 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적 능력에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탐구한다(홍성례·유영주, 2000; 강학중·유영주, 2003).

2) 부부관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관계의 향상과 관계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탐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예비부부교육"의 핵심적인 교육과정인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술, 성 역할의 이해, 성과 사랑의 요인들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1) 의사소통의 기술

부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은 부부간의 관계향상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방기주·이기숙, 2002). 성숙한 방식의 의사소통은 결혼관계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은 남녀 각각의 상이한 성 심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볼 때 남녀 간의 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Gray, 1995).

최규련(1995)은 의사소통기술의 결핍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부부관계의 갈등정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Rollings와 Feldman(1970)부부관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지적하였다. 즉,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질과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기술은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과 부부의 질적 관계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Clinebell, 1991; Jacobson & Margolin, 1979).

방기주와 이기숙(2002)은 결혼초기의 부부들의 의사소통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듣기, 표현하기, 문제해결의 기술, 성 생활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배우자에 대한 이해·부부헌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의 능력증진 프로그램은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각 하위 영역인 듣기, 말하기, 문제해결 영역의 평균점수는 교육 후에 더욱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 후의 효과는 배우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관계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간의 결혼생활 적응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는 배우자간의 성역할 태도는 결혼생활의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양명숙, 1996; 윤경자, 1997; Perry-Jenkins & Crouter, 1990; 박주희, 2003; 차성란, 1998; Hochschild, 1997; Kane & Sanchez, 1994; Park & Liao, 2000). 즉 전통적 태도를 지닌 남편을 배우자로 둔 아내일수록 더욱 낮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양명숙, 1996; 윤경자, 1997).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취업가정의 일과 가족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밀접하게 관련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erry-Jenkins & Crouter(1990)은 남편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고정화된 관념의 정도는 부인이 취업하였을 때 가사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남편일수록 그들 부인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남편들에 비해 가사일을 덜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의 태도는 가족과 일의 양립과 관련한 여성들의 다중역할 수행 및 결혼 생활에 질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Erickson, 1993; Pina & Bengston, 1993).

한편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더욱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박주희, 2003; 차성란, 1998; Hochschild, 1997; Kane & Sanchez, 1994; Park & Liao, 2000) 다시 말하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도 성역할 태도의 재사회화에서 지체를 보이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남녀가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수용하는 것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Kane와 Sanchez(1994)는 맞벌이 가족의 남편들은 그들 부인의 취업은 수용할 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부인과 가사 일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즉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인들의 취업을 지지하고 원하는 경우라도 여성의 직종으로 간주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며 아내들의 일차적 역할이 가사와 육아를 위한 것으로 기대하는 전통적 태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Hochschild(1997)는 미국 ‘Amerco’ 회사의 맞벌이 취업부부를 대상으로 취업부부가 가족과 일을 양립시키는 행동을 연구하였으며 취업가족의 부부들은 부인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역할 공유 및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전통적 역할 기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배우자간의 평등한 성 실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은 남편들에게 더욱 필요한 요구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서울시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의 참여도에 관한 차성란(1998)의 연구 결과도 남편보다 아내가 더욱 평등한 성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사랑과 성

부부간의 사랑은 결혼초기의 단순한 열정을 넘어 결혼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인성 및 역할체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강진경외, 2001).

Sternberg(1989)는 사랑의 삼각이론을 제시하면서 사랑을 친밀감, 책임감, 열정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세가지 요소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사랑의 세 요소는 요소간의 조합에 따라 사랑이 아닌 것, 좋아함, 도취된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실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의 8가지 유형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는 것과 이와 같은 사랑의 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관계를 둘러싼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과 관련된 여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한 사랑의 세 구성 요소들도 각각 다른 속도와 강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랑의 유형은 일생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Sternberg(1989)는 사랑은 부부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시켜야할 과제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부부의 성적적응은 결혼생활 만족에 관계한다는 사실을 보고 한다(장순복, 1996; Hurlbert et al., 1993). 즉, 부부간의 성적 부적응은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낮게 하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며 드러내지 않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현숙(2004, 2003)은 성생활에 만족하는 부부일수록 평소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배우자들이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추구 이상의 사회적 관계 기능을 내포하는 활동이라는 것과 결혼관계에서 성생활의 적응문제는 부부간의 생리적 욕구 동반된 부부 관계적 욕구로서 결혼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을 이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가족문제의 예방을 위한 과학적 연구

가족문제의 예방을 위한 예방과학의 적용은 가족관계의 주된 역기능을 예방하고 수정하는(Coie, et al. 1993) ‘독립적 위험인자’에 초점을 둔 페러다임과 ‘보호’ 또는 ‘회복인자’의 페러다임의 통합적 개념에 기초 한다(Hawkins et al., 1992). 즉, 예방과학의 페러다임에 기초하여 예비부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선행하여 결혼생활에 내재할 수 있는 ‘위험인자(risk factors)와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 양자를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위험인자(risk factors)’ 또는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 들의 출현으로 결혼생활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결과들이 발생 된다는 사실을 단순히 확신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출현했을 때 더욱 그러한 결과들이 초래될 경향이 높다고 한다. 즉, ‘위험인자(risk factors)’는 결혼생활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을 증대시

키는 요인이며,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는 결혼생활의 문제발생 상태를 저지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는 '위험인자(risk factors)'가 출현했을 때만 활용되어 질 수 가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부부가 그들 미래의 새로운 가정에서 그들 원 가족에서의 경험을 뛰어 넘는 가족생활의 새로운 경험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 및 가족의 핵심기능을 강화 시킴으로서 결혼생활의 긍정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을 촉진시키는 한편, 부부의 결혼생활의 기능을 저해하고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로부터 결혼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여 부부의 적응능력을 강화 시키는 방안이다(최정숙, 2008).

따라서 효과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가족생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가족문제의 예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져야할 것이다.

III.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1. 프로그램의 목적

본 프로그램의 개발목적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미래 결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능력을 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예방과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결혼생활에 내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자(risk factors)', 즉 결혼생활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인, 부부, 가족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요인들의 억제와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 즉 개인 또는 가족들이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 및 문제에 저항하도록 돕는 보호적 요소들의 적용을 위한 기술의 습득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함양의 과정을 핵심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각 회기의 구성은 제 1회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제 2회기: 부부관계와 성 역할의 교육, 제 3회기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기술교육, 제 4회기 사랑과 성에 대한 이해교육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1) 제 1회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체계론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즉, 가족을 이해할 때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지닌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각 가족 구성들의

역할과 관계를 이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과 현대가족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의 중심과정인 전개 부분에서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부의 주요역할에 대한 강의와 기능적 가족이 되기 위한 부부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에 대한토론 및 참여자들의 결혼준비상태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종결부분에서는 결혼에 대한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2) 성역할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

성역할에 대한 이해 교육은 우선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에 관련된 개념들은 생물학적인 성(sex), 사회적 성 혹은 젠더(gender), 성적 욕망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행동뿐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 감정, 가치관, 이해심, 꿈, 행동, 환상, 존재 등을 의미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사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된 성역할 태도는 의사소통의 유형과 자아개념, 성에 대한 태도, 정신건강 등 인간 행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시키고 양성평등적 가치의 추구하고 태도의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을 돕기 위한 내용을 포함 시켰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성역할에 대한 개념과 배우자간의 평등한 성(gender)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의 강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의 중심과정인 전개 부분에서는 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역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분화되어 왔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격특성을 점검하는 검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녀의 성 역할의 콤플렉스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종결부분에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역할향상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3)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정현숙 등(2005)는 신혼부부들의 경우 의사소통을 애정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신혼기 커플들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룰수록 높은 질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커플들의 갈등해결의 방식은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표 1> 결혼준비교육의 내용구성을 위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

각 회기의 내용	위험인자 (risk factors)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해 이상적 환상을 지니고 출발하는 것. ·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 기능, 가치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 및 문제에 저항하도록 돕는 것. · 현대사회의 결혼과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져오는 것 ·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과 양성평등적 태도를 지니는 것. · 자아개념의 증진 등의 요소.
성 역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지니고 결혼생활을 출발하는 것. · 섹스에 젠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니는 것 등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오는 것. · 성인지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 · 자아개념의 증진 등의 요소.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플간의 대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대화가 결핍된 상태. · 잘못된 자기표현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 · 잘못된 경청기술의 적용등과 같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적인 대화법 · 합리적인 사고와 태도의 구축 등의 요소
사랑과 성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에 대한 개념 및 이해가 부족한 상태. · 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지니는 것 등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의 성 심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갖는 것. ·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는 것. · 올바른 성지식을 지니는 것 등의 요소

방식은 미혼남녀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을 돕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강의 내용의 소개와 참여자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자기소개를 포함 시켰다. 교육의 중심과정인 전개 부분에서는 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지향적 대화법과 사실지향적 대화법에 대한 강의와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 및 남녀간의 성 심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바람직한 대화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나의 대화 방식, 자기표현의 연습, 경청기술사용,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 관계지향적 대화, 나 전달법 등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종결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설명하고 평가하였다.

(4) 사랑과 성에 대한 이해교육

성과 사랑'에 대한 교육은 강의식 설명과 참여적 게임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의 유형을 탐구하며 사랑의 유형과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사랑은 현대부부 관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의 목표이며 커플들의 사랑에 대한 더욱 합리적인 이해는 부부생활의 정서적인 안정에 밀접하게 관련한다. 성에 관한 교육은 커플이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점검시키며 건강한 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도록 돕는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건강한 사랑과 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사랑과 성에 대한 이해 및 건강한 성

실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교육의 중심과정인 전개 부분에서는 사랑과 열정에 대한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랑의 일반적 특성 및 에로스, 루더스, 스토르게, 프래그마, 마니아, 아가페 등 대한 강의와 사랑의 조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꾸어가는 사랑, 사랑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은 참여자들의 성에 대한 태도 점검을 실시하는 활동과 남녀간의 성 반응의 차이를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둔 강의가 진행되었다. 종결부분에서는 올바른 성 이해의 중요성을 재설명하고 평가하였다.

2)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을 위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의 설정

3. 프로그램의 대상과 운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총 8쌍이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남녀 총 20명이었다. 그 중 결혼을 계획하는 8쌍의 커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후 취업직종, 배우자와의 만남의 유형, 종교, 결혼 후 예상 월 소득, 결혼 후 가족의 형태, 과거 결혼 전 예비 부부교육의 참여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본과정은 2005년 5월 27일과 5월 28일에 실시되었으며 총 4회기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의 소요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120분으로, 총 8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기의 진행은 강의, 그룹작업, 소집단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4. 프로그램의 내용

<표 5>와 같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구성은 <표 2>, <표 3>, < 표 4>

<표 2> 프로그램 강의안 제 1회기

Session 1: 오리엔테이션 및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 120분					
교육목적	참여자들이 하여금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징과 기능성강화를 이해하도록 하며 행복한 결혼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교육목표	①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징을 이해시킨다. ② 기능적 가족에 관한 관점을 갖도록 돕는다. ③ 부부의 세 가지 역할을 이해시킨다. (표현적 역할, 도구적 역할, 부부와 주위 사람과의 관계) ④ 결혼준비상태 점검. ⑤ 행복한 결혼을 위한 지침제시.				
교육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준비물
오리엔테이션	① 진행자의 인사, 일정 소개, 사전요구도 조사	①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일정을 소개한다.	활 동	30	이름표 PPT
	② 자기소개	② 자신의 이름, 결혼관 등 본인 소개를 하도록 한다.		20	
도 입	①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 ② 현대가족의 특징에 대한 이해	①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②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징을 이해시킨다.	강 의	15	PPT
전 개	①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해	① 부부간의 세 가지 역할을 이해시킨다.	강의 및 활동	15	PPT 결혼준비 상태 검사지
	② 기능적 가족이 되기 위한 역할수행에 대한 토론	② 기능적 가족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역할 수행의 방법을 제시한다.		20	
	③ 결혼준비상태 검토	③ 결혼준비상태를 점검시킨다.		10	
종 결	① 중요개념 재설명 및 평가 ② 다음시간 예고	① 행복가족이 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② 다음세션 내용 및 시간을 예고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10	

<표 3> 프로그램 강의안 제 2회기

Session 2: 성역할과 부부관계 120분					
교육목적	관계 및 성 역할의 이해를 통한 평등한 커플부부관계 형성				
교육목표	①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이해시킨다. ② 성 역할이 부부관계 및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킨다.				
교육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준비물
도 입	① 강사 및 이번시간에 대한 소개	① 성역할 이해의 내용과 평등한 성 (Gender)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 의	10	
전 개	① 성에 대한 이해	① 성역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분화되어 왔음을 이해시킨다. ② 성격특성을 점검시킨다.	강 의 활 동	10 20	성격 특성 검사지 ① 성역할 특성 검사지1 ② 성역할 특성 검사지2 ③ 가사분담 검사지
	② 성 역할과 콤플렉스	① 남성다음과 콤플렉스, 여성다음과 콤플렉스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킨다.	강 의	20	
	③ 성역할과 부부간의 사랑	① 부부간의 사랑을 이해시킨다. ② 부부의 권력, 역할, 의사소통 관계를 이해시킨다.	강의 및 토론	40	
종 결	① 중요한 개념 재설명 ② 다음시간 예고	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역할향상 지침을 제시한다. ② 다음수업의 내용 및 시간을 예고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표 4> 프로그램 강의안 제 3회기

Session 3: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					
교육목적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대화기술을 습득하여 커플간의 관계를 향상을 증진시킨다.				
교육목표	① 대화의 원리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② 자신의 대화 성향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③ 커플간의 대화 성향을 이해시킨다. ④ 대화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시킨다. ⑤ 남성과 여성의 성 심리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대화상의 왜곡된 메시지를 이해시킨다. ⑥ 자기표현 연습				
교육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준비물
도 입	① 강사 및 강의내용 소개	이번시간에 배울 내용을 소개한다.	활동	10	
전 개	① 대화의 원리 이해	① 관계지향적 대화법과 사실지향적 대화법을 이해시킨다. ② 관계지향 대화법을 연습시킨다.	① 강의 ② 활동	① 10 ② 10	대화 진단표
	② 갈등해결을 위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 및 남녀 간의 성 심리의 차이 이해	① 갈등해결과 부부싸움을 이해시킨다. ② 부부간에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시킨다. ③ 부부싸움 규칙을 이해시킨다. ④ 바람직한 대화 등의 내용을 이해시킨다.	강의	30	
	③ 바람직한 대화방법	① 기본적인 태도를 이해 시킨다. ②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을 이해시킨다. ③ 잘 듣기 등의 내용을 이해시킨다.	강의	20	
	④ 실습	① 나의 대화방식을 실습시킨다. ② 자기표현을 연습시킨다. ③ 경청기술사용을 연습시킨다. ④ 갈등해결 방법과 관계지향적 대화나, 전달법 등을 실습한다.	활동	30	
종 결	① 중요개념 재설명 및 평가	④ 중요한 개념을 재차 강조한다.		5	
	② 다음시간 예고	② 다음수업의 내용 및 시간을 예고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5	

<표 5> 프로그램 강의안 제 4회기

Session 4: 건강한 사랑과 성 120분					
교육목적	커플간의 애정을 증진 시키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지도				
교육목표	① 사랑의 의미와 속성을 이해시킨다. ② 커플간의 사랑의 색깔을 이해시킨다. ③ 성공적인 사랑을 실현시키는 태도형성을 돕는다. ④ 남녀 간의 상이한 성 반응을 이해시킨다. ⑤ 성 심리를 이해시킨다.				
교육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준비물
도 입	① 강사소개 및 강의내용 소개	사랑에 대한 이해 및 건강한 성 실현을 이해시킨다.	강의	10	
전 개	사랑	① 사랑이라 하면 (끝말잇기) 실습시킨다.	활동	10	
	① 열정과 사랑	② 사랑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시킨다.	강의	10	
	② 사랑의 일반적 특성	③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시킨다.	활동	15	
	③ 사랑의 조건	④ 에로스, 루더스, 스토르계, 프래그마, 마니아, 아키페등의 유형을 이해시킨다.	강의	15	
	④ 사랑의 유형	⑤ 사랑의 색깔 점검한다.	활동	10	
	⑤ 나의 사랑의 색깔 점검	⑥ 가꾸어가는 사랑, 요소를 제시한다.	강의	10	
종 결	올바른 성, 아름다운 성	① 각본과 성에 대한 태도 점검한다.	활동	10	
	① 점검하기	② 남녀간의 성 반응의 차이점 이해시킨다.	강의	20	
종 결	① 중요개념 재설명 및 평가	사랑의 속성과 남녀간의 성 반응의 차이 이해시킨다.		5	
	② 다음시간 예고	다음수업의 내용 및 시간을 예고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5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프로그램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생활의 잠재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학부설 가족복지센터'의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교육과정의 홍보를 통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적령기 남녀 20명을 모집하여 교육하였으며 그 중 결혼을 계획하는 8쌍의 커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그 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들의 교육내용 만족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욕구 등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기술의 수준, 성역할 태도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사후조사는 실시된 프로그램의 각 세션의 교육내용과 교육효과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성역할 태도 및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기술의 수준, 성역할 태도 등의 변화에 대한 것을 질문하였다.

각 강사와 진행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사전 사후 조사의 통계적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 참가자들의 성역할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연구문제 2>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 참가자들의 의사소통 수준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연구문제 3>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실시된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개선점과 제안은 무엇인가?

3. 측정도구

본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참여자의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만족도와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한 성역할 태도의 변화와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였다.

총 78개 질문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질문하는 12개 문항과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17개 문항, 의사소통수준

을 측정하는 25개 문항, 그리고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포함한 교육 실시에 대한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하는 24개 문항의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의 성역할 태도는 한국여성개발원(김양희·정경아, 1999)에서 개발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5 Likert 척도의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낮을수록 더욱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는 사전조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90$)이고 사후조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75$)이었다.

참가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Olson 등(1983)에 의해 개발된 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ENRICH)의 의사소통 척도를 허윤정(1997)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5 Likert 척도의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는 사전조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75$)이고 사후조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91$)이었다.

4. 자료처리방법

사전 사후조사의 분석을 위한 본연구의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X14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주요통계 분석방법은 Cronbach's α 신뢰도검증, 빈도, 백분율, 평균, Paired t-test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교육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 되었다.

V. 연구결과

1. 표본의 성격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총 16명이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 50.0%(8명), 여성 50.0%(8명)으로 8쌍의 남녀였다(<표 6> 참조). 참여자들의 연령범위는 22세에서 31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6세였다.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전체의 87.5%(14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6.25%(1명), 전문대 졸 6.25%(1명)으로 응답하였다.

결혼 후 취업유형에 대하여서는 전체 100.0%(16명)이 맞벌이를 희망하였다. 직업유형에 대해서 사무직이 전체의 50.0%(8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37.5%(6명), 전문기술직 12.5%(2명)로 응답하였다.

배우자의 만남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의 93.75%(15명)이 '연애를 통해서' 만났다고 응답했으며 오직 6.25%(1명)만이 '중매가 이루어진 후 연애를 하게 된 절충형'에 의해 만나게

<표 6> 교육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

(N=18)

인구학적 특성		명(%)
성 별	남	8(50.0)
	여	8(50.0)
연령(세)	m=26.10세(sd=3.73, 범위=21~31)	
교육수준 전체	고졸(중퇴)	1(6.25)
	전문대졸(중퇴)	1(6.25)
	대졸(중퇴)	14(87.5)
	대학원졸(중퇴)	0 (0.0)
결혼 후 취업형태	외벌이	0(0.0)
	맞벌이	14(87.5)
	학 생	2(12.5)
직 업	사무직	8 (50.0)
	판매직	0(0.0)
	전문기술직	2 (12.5)
	학 생	6 (37.5)
결혼유형	연 애	15(93.75)
	절충형	1(6.25)
종 교	개신교	8(50.0)
	천주교	2(12.5)
	무 교	6(37.5)
결혼후 월소득	200만원	2(12.5)
	300만원~400만원	8(50.0)
	400만원 이상	6(37.5)
결혼후 가족형태	확대가족	2(12.5)
	핵가족	8(50.0)
	부부만	6(37.5)
교육전 예비부부 교육 참여 여부	없 음	14(87.5)
	있 음	2(12.5)
미래 결혼생활을 위한 교육적 도움 여부	없 음	14(87.5)
	있 음	2(12.5)
전 체		18(100.0)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종교는 전체의 50.0%(6명)가 개신교를 믿고 있었으며 12.5%(2명)은 천주교를 믿고 있었으며 37.5%(6명)이 무교였다. 결혼 후 월 소득에 대해서는 300-400만원이 전체의 5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7.5%(6명)이 400만원 이상, 12.5%(2명)이 200만원으로 응답했다.

결혼 후 가족의 형태로는 전체의 50.0%(8명)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이룰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7.5%(6명)이 부부만 살아간다고 응답하였고, 12.5%(2명)이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구성된 확대가족을 이룰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결혼 전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서는 전체의 87.5%(14명)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래의 결혼을 위해 가족 성원으로부터 교육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7.5%(14명)이 교육적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12.5%(2명)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2. 교육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성 역할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Paired t-test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더욱 낮은 점수는 더욱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 참여자의 성역할 태도의 평균값은 더욱 하향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사전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더욱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참여자의 의사소통 수준

교육 참여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수준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Paired t-test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나타낸다.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 참여자의 의사소통 능력 수준의 평균값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더욱 상향 점수를

<표 7> 교육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의 사전 사후 검사비교

변 인	사전검사 점수	사후검사 점수	t 값
성 역할	2.46(0.75)	2.41 (0.53)	.28

(N=16, Cronbach's α , 사전 .90, 사후 .75)

<표 8> 교육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의 비교

변인	사전검사 점수	사후검사 점수	t 값
의사소통 수준	3.16(0.18)	4.23(1.18)	.32*

(N=16, Cronbach's α , 사전 .90, 사후 .75 * $p < .05$)

<표 9>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항 목	평가내용	평균(표준편차)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결혼과 가족	4.1(0.39)
	부부관계 및 성 역할의 이해	3.7(0.41)
	부부간의 의사소통	4.6(0.50)
	성과 사랑	3.5(0.90)
	총 합	3.98(0.55)

<표 10> 참여자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교육이후 관계 만족도	4.0(0.57)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3.80(0.41)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1) 교육내용

<표 9>에 따르면 결혼준비교육 실시 후 참가자들의 교육내용의 만족에 대한 총합점수는 5점 만점의 3.98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은 5점 만점에서 4.60점으로 부부관계 및 성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과 사랑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2) 교육효과에 대한 만족도

<표 10>에 따르면 교육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교육이후 커플간의 관계개선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4.0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5점 만점에서 3.80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돕는 프로그램은 단기교육 프로그램이었으며 교육 실시 후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1. '성 역할 교육'의 결과와 관련해서 '성 역할 교육'을 받은 후 참여자들은 더욱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배우자간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은 결혼생활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강조하였다(양명숙, 1996; 윤경자, 1997; Perry-Jenkins & Crouter, 1990; 박주희, 2003; 차성란, 1998; Hochschild, 1997; Kane & Sanchez, 1994; Park & Liao, 2000). 더욱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결혼 후 맞벌이를 희망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부부가 ‘양성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은 결혼 후 일과 가족을 결합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스스로 양성 평등적 성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성 역할 태도의 실제적 변화에서는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부부들이 부부간의 양성 평등적 역할 수행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혼 생활에서 남녀 간의 역할 공유 및 변화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아직 전통적 역할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이 단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시간의 교육적 투입은 커플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도왔을지라도 그들의 성 역할의 재사회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미흡하였다고 보며 더욱 오랜 시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평등한 성역할의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은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여 형성된 태도 또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 역할 교육을 위한 장기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2.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 교육의 효과와 관련해서 교육 후 참여자들의 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 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교육내용은 ‘결혼준비교육’에서 교육내용의 요구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즉, 부부관계의 개선 및 부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커플간의 상이한 성 심리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대화 방법을 습득한 것은 그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적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법’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회는 남녀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결과로 인지되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은 행복한 부부생활을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승인하여 긍정적 기술 습득과 태도형성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다. 의사소통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참가자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 본연구의 참가자들의 ‘교육내용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의 강의안은 참여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라는 점과 참여자들의 집단성격과 요구에 연관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유효적절하게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보면 의사소통기술, 성 역할에 대한 이해 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자들은 성과 사랑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가장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차기 교육의 과정은 더욱 정밀한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4. 참여자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해서 본연구의 참가자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후 커플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부부들은 커플간의 관계개선에 대해 매우 높게 동기화 되어있었다.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적극적 태도로 인해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적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사전 사후 조사의 객관적 결과 및 교육자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관적 평가를 더욱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의 지표들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미래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예비부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기술의 학습은 결혼생활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관계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결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보편적 보급과 대한 문화적 이해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모집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

즉, 결혼을 앞둔 적령기 남녀들은 프로그램의 참여의사를 갖더라도 ‘결혼준비교육’의 타이틀에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를 위해 교육장소를 방문했던 커플이 ‘결혼’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느끼고 참석을 포기했던 사례도 발생하였다.

결혼의 성립은 남녀 간의 지속적인 애정과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의 법적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커플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예비부부’로 승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아직 우리문화에서 꺼려하는 문화적 영향을 반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결혼준비교육’은 이러한 문화적인 국면을 고려하여

그 보급을 위한 다양한 대안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부터의 준비를 위한 공교육 과정의 보급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지역사회 중심의 아웃리치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교육회기의 확장과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이 연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태현 · 박주희(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의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79-106.
- 김숙자(2008). 최근 10년간의 한국의 이혼현상. 명지대학교 여성가족 생활연구소.
- 여성가족생활연구**, 12, 1-51.
- 김양희 · 정경아(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화 · 이진숙 · 이옥희(2007).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 강진경 외(2001).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한국부부의 사랑의 구조의 변화 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51-66.
- 강학중 · 유영주(2003). 한국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 기혼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61-84.
- 박말순(1998).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주희 (2003). 동아시아 기혼여자대학원생들과 미국의 기혼 여자대학원생들의 가족 및 직업역할 만족도와 긴장도: 동아시아 기혼여자대학원생들의 성역할 재 사회화에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1(6), 29-45.
- 박주희(2005). 현대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기초. 도서출판 하우.
- 박주희(2007). **현대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실제**. 도서출판 구상.
- 방현주 · 이기숙(200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결혼 초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에 관한 연구 -유아기 가족의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39-51.
- 신수련(1993). **부부관계의 의사소통 및 비합리적인 신념과의 관계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영 · 김정옥(2005).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 송정아(2006). **가족생활교육론**. 교문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219-236.
- 이영호 외(2004).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27-43.
- 오윤자(2001).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09-135.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81-86.
- 정미향 · 김득성(2001). 결혼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69-83.
- 정현숙(2005). 결혼준비교육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51-159.
- 정현숙(2004). **결혼안전정복**. 신정.
- 정현숙, 유계숙, 최연실(2003), **결혼학**. 신정
- 장순복(1996). 여성건강연구; 기혼여성의 성적 자율성. **간호탐구**, 5(1), 19-71.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의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정숙(2008). 결혼초기부부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8), 103-152.
- 허운정(1997).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례 · 유영주(2000).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1-271.
- 통계청(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통계청.
- MBC Special, 2006년 6월 16일 방송
- Cate, R., & Lloyd, S(1988). *Courtship, In Duck, S(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Academic Press.
- Clinebell, H. J(1991). *Wellbeing*. Sanfrancisco, California: Harper.
- Coie, J. D., &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rnow, J. R., Markman, H. J., et al(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1013-1022.
- Graham, A. & Graham, C(2001). *Families, Household, Society*. N.Y.: Palgrave.
- Gray, J(1995). *Mars and Venus in Love*. N.Y.: Harper Collins Publisher.
- Erickson, R. J(1993). Reconceptualizing family work; The effect of emotional work on the perception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888-900.

Fowers, B. J.(1990).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standardized marital assessment: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39, 368-377.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Y(1992). Risk and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y Bulletin*, 112, 64-105.

Hochschild, A. R(1997).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Y.: Metropolitan Books.

Hurlbert, D. F., & Apt, C., Hurlbert, M. K., & Pierce, A. P(2000). Sexual compatibility and the sexual desire-motivation in families with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Behavior Modification*, 24, 325-347.

Jacobson, N., & Margolin, G(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ing principles*. N.Y.: Brunner/Mazel.

Kane, E. W., & Sanchez, L(1994). Family status and criticism of gender inequality at home and at work. *Social Forces*, 72(4), 1079-1102.

Mace, D(1979).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 A New field-, *The Family Coordinator*, 24(3), 131-136.

Olson. D. H., Fournier, D. C., & DeFrain, J. C(1983). *PREPARE/ENRICH Counselor's Manual*. PREPARE/ ENRIC, Inc., P.O. Box 190, Minneapolis, MN 55458.

Olson, D. H(2003). *ENRICH Couple Scales*. LIFE INNOVATIONS, Inc. Minneapolis: MN.

Park, J., & Liao, T. F(2000).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men professors: Role changes and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Sex Roles*, 43(7/8), 571-589.

Pina, D. L., & Bengston, V. L(1993).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wives' happiness: Ideology,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901-912.

Perry-Jenkins, M., & Crouter, A. C(1990). Men's Provider role attitudes: Implications for household work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36-156.

Rollings, B. D.,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0-27.

Sbatelli, R. M(1988). Measurement issues in marital research: A review and critique of contemporary survey instru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891-915.

Sternberg, R. J(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y of Love*,(pp.119-138.).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Toffler, A(1981). *The Third Wave*. N.Y.: Bantam Books.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The Guilford Press.

- 접수 일 : 2008년 11월 14일
- 심사 일 : 2008년 12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30일